

대구 금달래 일화의 자기서사 구조와 전승자 의식

김기호*

|| 차례 ||

- I. 머리말
- II. 자기-경험담인 금달래 일화
- III. 금달래의 행위 구조와 화자의 논평
- IV. 화자의 이중자아(doubling)로서 금달래의 원형적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금달래 일화는 1930년대 대구 서문시장을 배경으로 살아간 한 실성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다. 금달래와 같은 여인은 어느 지역에서나 있을 수 있고 있어왔다. 그러나 대구 사람들처럼 이 여인을 기억하고 자기 서사로 수용한 경우는 흔치 않다. 대구의 금달래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와는 달리 대구 사람들이 <요약-소개-분류-(평가)-해결-종결>인 자기서사 구조를 통해 그녀의 행위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금달래에 대한 이야기가 대구 사람들의 정체와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정체와 관련하여 그녀가 늘 화려한 한복을 입고, 가슴에는 늘 보자기를 안고, 제 정신이 들 때면 서문시장에서 뜨개질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에 주목하였다. 또한 금달래가 자신의 성적인 부분의 신체를 경시하거나 심지어 훼손한 반면 직물 짜기나 옷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무엇보다 소중히 하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신화적 원형성에 기대어 이들 금달래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창조와 지혜의 원형적 여성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대구 사람들의 심층 의식에는 織造와 관련한 創造와 智慧의 여성성¹이 보다 역동적으로 계승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물론 우리 시대에 대구의 동성로를 확보하는 금달래와 같은 실성한 여인을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 사람들이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라면 창조와 지혜의 여신과 조우할 가능성은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 높다. 왜냐하면 고대의 베짜는 여성성이 길썩하는 신라 여성으로 계승 되었고 이들의 이미지가 또 끊이지 않고 근대의 대구 금달래에 투영되었듯이 창조와 지혜의 금달래가 또 다른 모습으로 대구 사람들을 면면히 찾을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 금달래, 일화, 자기서사, 여성성, 지혜의 원형, 창조의 원형, 대구의 정체성.

I. 머리말

‘금달래’는 실성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일화의 주인공 이름이다. 여주인공의 이름이 왜 금달래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일화의 화자¹⁾들도 고민한 흔적을 보였다. 화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금달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이다. 일반명사로서 금달래는 무엇보다 실성한 여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꽃 진달래의 색상과 연관하여 화려한 색상으로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나타내는 말이다. 일부 화자들은 ‘금달이네’ 어머니를 나타내는 용어라 보기도 하고 ‘금달떡’처럼 ‘금달’ 출신의 아낙에 대한 호칭이라 한다. 심지어 어떤 화자는 사고를 잘 내는 여자, 말괄량이, 사랑스러운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한다. 모두 일리가 없지는 않으나 ‘진달래꽃같이 화려한 색상으로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실성한 여인’을 호칭하는 말로 보는 것이 일화의 내용과 부합한다.

금달래가 실성한 여인을 나타내는 이름인 만큼 금달래는 한 명일 수 없

1) 화자를 사전적 의미로써 Narrator 곧,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사용한다.

다. 지역의 수만큼 금달래는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제보자는 조사자가 “금달래 이야기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모른다.”고 하다가, “대구 금달래 이야기해주세요?”라고 했을 땐 “아, 대구 금달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반응은 대구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금달래 이야기는 모른다는 것을 나타낸 듯하다. 어떤 제보자는 70년대 초반에 학교 앞에서 만난 한 여인을 회상하면서 금달래는 상주에도 있었다고 했다. 조사 과정에서 상주 금달래처럼 부산 금달래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지역과 시대를 달리하여 금달래는 언제, 어디서나 있어왔고 또 있을 것이라는 추단이 가능하다.

대구 금달래 이야기에 등장하는 금달래는 시간적으로는 1930년대를 살았으며²⁾, 공간적으로는 대구 특히, 무태와 팔달교,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대신동과 달성공원 일대를 주요 생활터전으로 삼았다.³⁾ 그런데 금달래가 살다간 이들 공간은 일제 강점과 관련하여 대구 사람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흔이 베인 곳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곳은 대구 군수 박중양이 일본 상인들의 이권을 위해 깡패들을 동원하여 대구읍성을 하루저녁에 허물고 이곳을 통해 일제의 자본과 상권을 대구 시내로 끌어들이는 대표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야기 속 금달래는 비자발적·약탈적 근대

2) 권영호도 구연자의 구술을 종합하여 금달래라는 여인이 대구시 달성동, 원대동, 대신동 등에 나타난 시기를 1930년대로 추정하였다. (『금달래 이야기의 전승 양상과 그 의미』, 『어문론총』 제42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p.156.)

3) 공간에 대한 기억은 대체로 일치한다. 화자들은 대구 동구의 무태를 금달래의 출생지로 추정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지만 예외적으로 범물동을 출생지로 보기도 한다. 금달래가 주된 생활의 터전으로 삼은 곳은 대체로 칠성시장, 서문시장, 대신동, 계산성당, 달성공원 일대이다. 금달래가 돌아가 숙식한 곳은 달성공원에서 금호강으로 흐르는 달서천 일대이거나, 금호강이 흐르는 팔달교 밑이다. 달서천은 현재 복개가 되어 하천으로서의 모습은 볼 수 없고, 팔달교는 칠곡으로 나가는 관문 역할을 한다.

화가 진행 되던 1930년대 전후의 대구역에서 서문시장까지의 공간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⁴⁾

대구 금달래 이야기는 형식적으로 보면 ‘자기-경험담(personal narrative)’에 속한다. 왜냐하면 화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들 중 선택과 배제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들을 선택하여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 현장 채록에 나서 보면 직접 경험한 화자와 간접 경험한 화자를 만난다. 전자의 경우 화자들은 “난 보고 얘기하지 안 보고 뭐 얘기 듣고 키는커라? 난 봤어.” “난 봤어 동네 밥 얻어먹으러오고 도둑질도 하고 옷도 걸어놓으면 다 가가뿌고 와가가노 이카면”, “봤어, 나 이 많고 인제 죽었지” 등등과 같이 말한다. 후자의 화자들은 “어 우리는 못 봤어요” “보진 못하고 들었지.” “말만 들었지 구경은 못 했고” 등등과 같이 밝혀 전승담의 형식이지만 이 또한 넓은 의미의 ‘자기-경험담’ 범주에 든다고 하겠다.

금달래 이야기가 ‘자기-경험담’이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된 행위는 화자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등장인물인 금달래의 행위이다. 그녀의 행위는 대체로 ‘누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그 결과 이야기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 또한 화자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금달래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금달래의 행위와 금달래의 행위에 대한 논평으로 구성된 이야기라고 하겠다. 그러나 ‘자기-경험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화자는 금달래의 행위와 논평에만 머무를 수 없고 이 둘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기 내면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자기-경험담’이라는 이야기 형식이 이러한 결과를 강제한다.

4) 그러나 일반 화자들이 호명하듯이 본 논문에서도 ‘서문시장 금달래’가 아니라 ‘대구 금달래’라 명명한다.

‘자기-경험담’으로서 대구 금달래 이야기의 특별함에 주목함으로써 본고에서는 다음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경험담’으로서 금달래 일화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둘째, 금달래 일화를 통해 화자는 자기 내면의 무엇을 발견하는가?

셋째, 화자의 자기 발견은 대구 사람의 어떤 마음과 연결 될 수 있는가?

위의 문제 제기 중 다소 무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셋째를 포함한 것은 이것이 대구의 미시적 정체성 찾기에 도움이 되리라 보기 때문이다. 요즘 대구·경북은 지역의 정체성 찾기에 적극적이며 그 과정에 선비정신, 화랑도 정신, 동학사상, 새마을정신 등이 주요하게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그 적용의 범위가 대구·경북의 경계를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거대 사상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의 정체성을 찾는 데는 의의 못지않게 한계도 보인다. 거대 담론 중심의 정체성 찾기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는 미시적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⁵⁾ 물론 대구의 실성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대구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노력도 미시적 차원에서 진행 된 노력 중 하나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현장에 나아가 금달래 이야기를 조사하였다. 조사 현장은 대구 달성공원, 망우공원, 두류공원 일대 등이다. 이들 지역은 금달래가 활동한 중심 무대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유년기에 금달래를 목격했음직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

5) 설화 혹은 일화를 통해 대구 사람의 정서적, 기질적, 감정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 연구로는 이근옥의 “대구지역 전설·민담을 통해 본 대구정신의 연구”(『대구의 정신을 찾기 위한 대구향토사 조사연구』, 대구광역시, 2004, pp.401-467.)가 주목을 끈다. 또한 설화 혹은 일화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민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대구 정신에 접근한 노력(대구사회연구소, 『전환기, 대구·경북의 선택』, MBC 대구문화방송·매일신문사, 1994) 또한 대구 정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도이다.

는 곳이다. 조사 결과 32개의 금달래 이야기를 채록할 수 있었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표1에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32개의 이야기들만으로는 금달래 일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앞서 권영호 교수가 심층 조사를 통하여 채록한 금달래 이야기 20편⁶⁾을 본 연구에서 주요 자료로 활용한다.

II. ‘자기-경험담’인 금달래 일화

구술되는 이야기 중에는 정형화된 유형으로 세대를 걸쳐 전승되는 것들도 있고, 당대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당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회자되는 이야기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설화라 하고, 후자를 일화라고 한다. 대구를 중심 지역으로 하여 이야기 되는 금달래 이야기는 전승의 특징으로 보아 순수하게 설화의 범주에 포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금달래 이야기는 경험담으로서 시작하여 지역 사이의 전승을 보이기는 하지만 세대에 걸친 전승력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생활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실존한 인물인 금달래에서 포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연에 대한 경험을 언어화한 것⁷⁾이라는 점에서 일화이다.

설화는 아니고, 일화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금달래 이야기는 경험담으로서 특징을 강하게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금달래를 직접 본 사람들의 일차 구술과 일차 구술을 전해들은 사람의 이차 구술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구를

6) 권영호의 위의 논문 pp.179-183에 제시된 자료이다.

7) 이강욱, “일화의 설정과 그 정의 및 역사”, 『야담문학의 현단계1』, 보고사, 2001, p.96.

벗어난 구술자의 이야기에서도 일차 구술의 이야기와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차 구술들이 일차 구술들의 형식과 내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차 구술자들은 스스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결과이다. 이는 금달래 일화가 부연, 보충, 윤색 등 허구화 현상을 허용하지 않고 가능하면 직접 경험자의 경험담으로서 남으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금달래 이야기가 ‘자기-경험담’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유지하려는 현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서 본 연구자가 채록한 금달래 이야기 자료의 정보 목록을 제시하면 표1과 같다.

표1. 금달래 이야기

N.32

연번	이야기의 중심 내용	제 보 자	조사 일시	조사 장소
1	정신이상자 금달래	장연수, 남, 61	2011.10.29	달성공원
2	정신없던 금달래	이우득, 남, 79	2011.10.29	달성공원
3	별거벗은 금달래	여현영, 남, 70	2011.10.29	달성공원
4	헤폰 금달래	이영석, 남, 70	2011.10.29	달성공원
5	옷을 벗고 다닌 금달래	최영희, 여, 76	2011.10.29	달성공원
6	유성기 소리에 맞춰 춤춘 금달래	김윤성, 여, 87	2011.11.19	달성공원
7	욕 잘하는 금달래	이명숙, 여, 77	2011.11.19	달성공원
8	춤추고 노래한 금달래	김지선, 여, 74	2011.11.19	달성공원
9	치마만 입고 몸 자랑한 예쁜 금달래	청풍김씨, 남, 82	2011.11.19	달성공원
10	서문시장 근방을 매일 돌아다닌 금달래	문현옥, 남, 63	2011.11.12	달성공원
11	바람잡이 할마시 금달래	신유만, 남, 80	2011.11.12	달성공원
12	색색의 천을 옷과 머리에 건 금달래	박월성, 남, 61	2011.11.12	달성공원
13	대구에서 유명했던 금달래	이건오, 남, 68	2011.10.29	달성공원
14	남자같이 불안했던 금달래	배관규, 남, 81	2011.10.29	달성공원
15	얼굴 예쁜 금달래	지봉춘, 남, 81	2011.10.29	달성공원
16	간첩이었던 금달래	권수기, 여, 75	2011.11.19	달성공원
17	치마만 입고 나체쇼 한 금달래	송철희, 남, 74	2011.11.19	달성공원
18	키크고 예쁜 금달래	석옥분, 여, 80	2011.11.19	달성공원

19	사람 지나가면 옷 다 벗는 금달래	박노순, 여, 88	2011.11.19	망우공원
20	나체 바람으로 돌아다닌 금달래	김봉식, 남, 75	2011.11.05	달성공원
21	날마다 뜨개질한 금달래	박옥이, 여, 72	2011.11.05	달성공원
22	헌 옷 입고 달성공원 돌아다닌 금달래	한임상, 남, 89	2011.11.05	달성공원
23	대구역을 무대로 나체쇼한 금달래	김상섭, 남, 87	2011.11.05	달성공원
24	남자에 미친 금달래	지봉춘, 남, 84	2011.11.12	망우공원
25	작대기로 성기를 훼손한 금달래	윤종호, 남, 77	2011.11.11	두류공원
26	무나 오이로 성기를 훼손한 금달래	여현영, 남, 77	2011.11.11	두류공원
27	옷 벗고 돌아다닌 금달래	이상덕, 남, 75	2011.11.19	달성공원
28	금달래 보지 않고는 대구 갔다는 말 못해	이용수, 남, 79	2011.11.19	달성공원
29	옷 벗고 중앙통을 돌아다닌 금달래	문제선, 남, 85	2011.11.19	달성공원
30	구걸 않고 쓰레기통 뒤져 먹은 금달래	황극오, 남, 70	2011.11.19	달성공원
31	미쳐서 돌아다닌 금달래	달성서씨, 남, 80	2011.11.12	달성공원
32	옷 벗고 쫓아다닌 금달래	정규팔, 남, 00	2011.11.12	달성공원

표1의 자료들을 보면 직접 경험담이든 간접 경험담이든 금달래 이야기가 일차 구술 경험담으로 머무르려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작품을 통하여 이를 확인한다.

(자료1)

듣기에는 양반출신이라. 근데 그게 우째 정신병에 걸리가지고 그 옛날에 거어 내가 거 계산동에 살었는데 거 그래 가주고 우리 집에 들어 왔서여. 그때는 거 볼 때는 게 거의 장작, 솔깎이거덩. 솔깎 아나. 솔깎은 솔나무 거 잎 떨어진 거. 어 거 솔나무 떨어진 거 옛날에는, 어, 어, 어, 어 그래 솔나무 거 떨어진 거 옛날에는 연료가 없어 가지고 촌에는 산이 맴개요. 촌사람들은 칼 꾸리 그런 걸로 전부다 끌어가지고 가지 온다 카이끼네. 그라고 대구 시내 솔 깎을 거게 인제 집에 용케 이래 모아 가지고 팔러 나오고 그랬다카이끼네. 그래 금달래 집에 들어 와가지고 말이제 우리 부엌에 우리 어머이가 불을 때는데 막 밥이 나오면 지 혼자 지랄하고 불붙고 말이지. 그지 그 그 그 우리 모친이 팔리고 나가라 카고 쫓까 보내고 그랬지. 궁게 그 사람 특징은 말이지

이 시내에서 이 젊은 사람들 이에서 뭘로 하나면 나체 춤을 추는 말이지 훌쩍 벗은 거지. 주로 대신동 근방에서 거 시장 있는 데 거계서 숙식을 하고 당여이 대신동 근방 거 땅바닥에서 자고 이래가지고 나와 가지고 사람 지나가면 다 버섯뿌다 전부다. 금달래가 어떻게 생겼다가는지는 곤란하고 좀 똥똥한 편이라. 얼굴이 둥글둥글, 머한 그 시로 껌꼬, 그 사람 특징은 훌쩍 벗는기야.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막 벗어 가지고 어어 고 예기는 젊은 사람들한테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가 길가는 사람들 말이지 여자들 쫓아가가지고 멀리서 때리고, 그래가 폭행도 그이까 여자들이 금달래 보면 깜짝 거리써. (지금도 살아 있어요?) 에헤이, 지금은 나이 100살이 다됐으이 죽었지. 오래됐어. 어떻게 죽은 것까지는 내가 모르지. 불쌍허이 죽었겠지. 거뒤주는 사람 없으이끼네 집도 없고 하이끼네.(박노순, 남, 88세, 2011년 11월 19일 달성공원에서 채록)

(자료2)

금달래는 이야기는 없고, 나도 모르고, 금달래 고향이 무태라. 여, 서변동. 그것만 알지. (어떻게 미치게 되었는지?) 정신이상자겠지. 그런 뭐 여 저저역 앞에 거 신호등 있는데 거서 있으면, 뭐라 해야 돼지, 경례하는 걸 뭐라 카노? 저, 저, 뭐라 카노 그거. 경비하는 거 마 가라 오라 이카는 거. (교통경찰!) 그, 그래. 교통하는 거. 그 실제 그 위에 서가지고 그래 옷을 벗고 다녔는데. 완전히 나체로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언제 그런 거예요?) 그건 한 70년, 80년 됐지. 한 60년 됐지. 60년 전 전에 해라. 내가 80이니까, 70년 전이지. (70년 전이요, 아, 계속 미친 짓하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 금달래 씨가?) 아 뭐 그럴 정신이 돌아갈 때는 그래하고, 안 그러면 멀쩡하지 뭐. (아, 평소엔 멀쩡한데!). 그래, 고 위에 머라 카냐면 발생이 되면, 그날 발생이 되면 온 것을 다하고(아, 한 번씩 그렇게 미친거예요) 그지, 종일 벗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또 대구의 금달래카면 대한민국이 다 알지(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계속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죽었지 뭐, 성은 김씨라. 그 금달래가 김씨라. (그럼 이름이 김달래였겠네요?) 이름이 금달래가 아니고, 그 별호가 금달래라, 금달래같이 몸짓을 하이끼네 금달랜기라. (아 그럼 본명이 아니고 별

호입니까, 별호) 그래, 그래 별호 성은 김 씨고 (금달래처럼 몸짓을 한다고요). 아이지, 몸짓은 아니지. 그 말로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저 사람 보면 금달래라이칸다. 자기 이름도 아는데 보면 금달래, 보면 글달래, 이름이 이름 같지! (그런데 왜 하필 금달래라는?) 글썸 그거는 몰라. 그래 옛날 사람은 뭐가지고 그래했는지 몰라. 나도 그 어릴 때 듣는 이야기지 잘은 몰라. 나도 보지는 못했는데 말만 들었어. 뭐 대구 금달래, 대구 금달래 하는 말을 들었어. 대구 금달래 맞아. 몸도 간수 안 하고, 그렇다케. 지 몸도 간수 안 하고 그렇다 케요. 근데 하마 뭐 죽었지 살았겠나.(최영희, 여, 76세, 2011년 11월 19일 달성공원에서 채록)

(자료3)

금달래, 팬티 안 입고 다녔어. 치, 치, 치마만 걸치고 땡겼는데. 대구역 앞, 옛날 대구 역 앞에서 사람들 많이 모였거든. 동대구역이 없었으니깐. 그런데 딱 서가지고 모아놓고 치마를 이래뿌마 딱 벌췌나노코 볼 때 가지고 요새 나체쇼처럼. 젊은 학생들이 금달래도 알고요. 하구야, 그 저 팬티 안 입고 치마만 딱 걸치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렇데 골라서가 치마를 이래 펼치면 밑에 완전히 나체쇼를. 내가 부산 살다가 온 지 얼마 안 됐거든. 부산서 소문에 대구 금달래가 말이 이랬다 카데. 젠틀맨 이래 땡기면 똥을 가지고 씹 올에다 싹싹 비빈다카데. 하나의 정신이상자이지. 왔다 갔다 했지. 잠 땀 데 자고 요즘말로 또라이, 또라이. (전국적으로 유명했나요. 부산까지 소문이 다 나고) 대구 잘 모르거든. 온 지 인자 1년 반 정도 되는데. 대구 박작대기, 금달래카면 유명하지. 대구 금달래가 그래 유명하다카이.(송철희, 남, 74세, 2011년 11월 19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채록)

자료1은 전형적인 자기 경험담의 양식을 통해 구술된 이야기다. 자기 경험담의 일반 구성은 ‘요약 - 소개 - 갈등 - 해결 - 종결 - 논평’으로 이루어진다.⁸⁾ <요약>은 장차 구술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간략히

8) 마이클 J. 톨란, 김병욱·오연희 역, 『서사론-비평언어학적 서설-』, 한국문화도서관,

축약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야기의 초두에 ‘내가 계산동에 살 때 금달래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말한 것은 장차 전개 될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이 요약에서 구술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라는 것을 밝힌다. ‘금달래를 직접 보고 하는 내용이다’, ‘나는 금달래를 봤다’, ‘금달래를 새파랗게 젊을 때 장사하면서 봤다’, ‘나는 금달래의 얼굴을 직접 봤다’, ‘나는 대구역 앞에 갔다가 금달래라는 여자를 직접 보았다’ 등으로 표시한다. 이는 경험 주체가 곧 화자이며, 구술되는 이야기는 화자의 경험담이라는 것을 밝힌 표지이다. 이러한 표지를 통해 대구 금달래 이야기는 ‘자기-경험담(personal narrative)’의 영역으로 편입된다.

<소개>는 등장인물 및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는 것을 이른다. 자료1에서 양반출신, 계산성당, 금달래, 어머니, 대신동 근방의 시장 등은 사건의 전개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들로 소개에 해당한다. <갈등>과 <해결>은 자기 경험담의 중심된 행위 구조가 된다. 여기서 설정 가능한 <갈등>은 그 층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상정 가능한 층위를 보면 심리적 층위, 운명의 층위, 관계적 층위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관계적 층위에서 보면 <갈등>은 금달래와 세상 사이의 어긋남이며, <해결>은 금달래와 세상 사이의 어긋남을 바루는 것이다. 그러나 금달래 이야기에서 해결은 해결로 끝나지 않고 미해결로 종결된다. 즉 어긋남이 끝내 어긋남으로 남는다. 이어 나타나는 <종결>은 이야기가 끝났음을 나타내는 수사적 종결 표시이다. 여기서는 ‘죽었지, 오래됐어’ 등을 종결 표시로 볼 수 있다.

경험담에서 <논평>의 유무는 경험담을 하나의 완결된 문학적 형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험한 것에 대한 단순한 사실의 보고문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마찬가지로 금달래 이야기에서도 <논평>의 유무는

문학적 형상의 성취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된다. 자료1에서 구술 화자는 논평의 행위를 가하면서 사건의 진행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불쌍허이 죽었겠지. 거둬주는 사람 없으니까네 집도 없고 하이끼네’의 대목이 화자의 논평이다. ‘불쌍하다는 것’은 화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경험된 사건의 의미를 수용하고 수용된 의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다. 이와 같이 화자의 윤리적·정서적 반응을 통해 사건에 대한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금달래 이야기는 ‘자기-경험담(personal narrative)’으로서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된다. 자기 경험담으로서 모든 요건을 갖춘 이야기는 채록 자료 중 13편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료2는 제1차 ‘자기-경험담(personal narrative)’으로부터 파생된 ‘전승담’이자 전승의 지역이 대체로 대구로 한정된 이야기다. ‘전승담’이라고 한 것은 직접 경험한 사람의 경험담을 전해들은 사람이 화자로 나서서 제1차 경험담을 자신의 청중들을 위해 들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화자는 ‘전승담’이나 ‘경험담’이나의 구분을 명확히 청자에게 밝히 이야기 내용의 신뢰성 정도를 미리 밝힌다. 가령, ‘입을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를 들었다’, ‘금달래에 대해서 듣기만 했다’, ‘나는 보지는 못하고 들은 이야기다’, ‘우리는 금달래를 보지는 못했다’, ‘금달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이야기만 듣고 직접 보지는 못했다’, ‘오고가면서 들었다’, ‘나는 젊었을 때 금달래에 대해 들었다’ 등처럼 화자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화자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듣기만 했다’고 밝히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자신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경험담에 비해 사실성이 약할 수는 있지만 덧붙이거나 빼지 않고 들은 대로 들려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에 가깝도록 이야기하고자 하는 화자의 강박이 낳은 표현이다. 둘째는 자신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본 것은 아니고 들은 것이므로 사실로부터 다소 멀어지더라도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사실로부터 허구로 나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 자료2는 사실에 가깝고자 하는 화자의 강박과 허구로 나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욕망이 충돌하여 낳은 ‘자기-경험담’이다. 자료2에 해당하는 자료의 수는 연구자가 채록한 자료 32편 중 15편이다. 이들 15편은 허구로 나아가려 하지만 경험담의 제약을 강하게 받아 축약과 확장의 논리와 과정을 거치지 못한 자료이다. 이들 15편의 이야기들 또한 넓은 의미의 ‘자기-경험담’이다.

자료3은 앞의 자료2에 속하는 경험담 중에서도 대구의 지역을 넘어서 공간적으로 상당한 거리에 놓인 타 지역에서 전승된 이야기다. 이들은 자료1의 직접 경험담이나 자료2의 간접 경험담과도 구별된다. 특히 자료2의 간접 경험담과 구별되는 것은 자료2가 대구 권역에서 전승되는 것이라 한다면 자료3은 대구 권역을 벗어나 전승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다. 대구 권역을 벗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료2의 간접 경험담과는 또 다른 양식의 이야기라는 표시를 화자가 보여준다. ‘대구가 아닌 시골에서 자라면서 금달래에 대해 들었다’, ‘60년대에 대구에 왔기 때문에 금달래는 보지 못하고 이야기만 많이 들었다’, ‘부산에 살다가 대구로 이사왔다’, 그리고 ‘나는 대구 토박이가 아니라 금달래를 잘 모른다’ 등의 표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구 지역이 아닌 곳에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금달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대구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시는 금달래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화자가 선택한 표현이다. 아울러 화자는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다. 이는 본인이 전승의 자율권을 획득하여 이야기의 확장과 변개를 하여 원 이야기를 변이시켰다는 혐의를 쓰고 싶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비치

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을 내비치는 것은 자료2의 간접 경험담보다 더 강력하게 ‘혹 자신이 전달하는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특징은 소문 혹은 풍문에 대해 보이는 화자의 태도이다. 자료3에 해당하는 자료의 수는 32편 자료 중 4편뿐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금달래 이야기는 화자의 대상에 대한 경험 정도와 지리적 위치에 따라 ① 직접 경험담, ② 간접 경험담, ③ 풍문 혹은 소문으로 구분된다. ①과 ②, 그리고 ③의 이야기 형식에서 경험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이야기 사이의 거리를 보면 ①과 ③이 가장 멀다. 그런데 이야기가 ①에서 ③으로 이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③에서 ①로 이행하였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금달래 이야기는 ①에서 ②를 거쳐, ③으로 이행하였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직접 경험담에서 간접 경험담으로, 간접 경험담에서 소문이나 풍문으로 이야기 전승의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경험성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혹은 허구화의 추이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달래 이야기는 인물전설로 나아가가지는 못했다. 이것의 원인은 경험담의 고유한 기능인 ‘자기-성찰’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화자들의 의도가 작용한 데 있으리라 본다.

Ⅲ. 금달래의 행위 구조와 화자의 논평

‘자기-경험담’으로서 금달래 이야기가 특징적인 것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화자 본인이 아니라 금달래라는 점이다. 화자가 주인공 금달래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서술 시점은 관찰자 시점이

된다. 관찰자 시점으로 구술하기 때문에 화자는 금달래의 내면의 흐름을 온전히 들여다보듯이 말할 수 없다. 금달래에 관한 많은 부분들은 추측에 따를 뿐이다. 화자는 마치 1930년대 대구의 서문시장과 대구역 등을 무대로 금달래라는 배우가 군중들 앞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대로 전달한다. 본 장에서는 화자가 금달래의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논평들을 어떻게 구조화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금달래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논평의 결속 구조를 라보프의 자기 서사 구조를 통해 밝히기로 한다.⁹⁾ 라보프의 자기 서사 구조를 통해 드러난 금달래 행위와 화자 논평의 순차적·계기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I. 요약: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 스토리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

- 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직접 금달래를 보고 하는 내용이다.
- ② 나는 금달래를 보지는 못하였고 금달래에 대해 듣기만 했다.

<요약>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전체의 내용을 간단히 제시하는 것이다. ①은 금달래를 직접 경험한 화자가 제시한 요약이다. 화자가 직접 경험한 금달래에 대해 장차 이야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이러한 요약의 표시로 ‘나는 금달래를 봤다’, ‘내가 열 살 때 금달래를 직접 보았다’, ‘금달래를 새파랗게 젊었을 때 장사하면서 본 적이 있다’, ‘나는 17살에 대구역 앞에 갔다가 금달래라는 여자를 직접 보았다’ 등을 사용한다. ②는 금달래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경험한 화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요약이다.

9) 경험담의 구조로 라보프의 자기 서사 구조를 따른다. 라보프는 개인의 경험에 따른 구술 자기 서사물을 6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라보프의 구조는 다양한 개인의 자기 서사를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서사에서 화자가 제공하는 논평을 부각하였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요약의 표시로 ‘금달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보지는 못하고 들은 이야기이다’, ‘나는 60년대에 처음으로 금달래 이야기를 들었다’, ‘금달래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고 하게 될 이야기는 오고가면서 들은 이야기가 전부이다’ 등을 사용한다. 화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장차 금달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을 청자에게 알려 연역적으로 청중의 관심을 이야기로 몰입시킨다.

II. 소개: 누가, 언제, 어디서?

- ① 누 가: 화자, 금달래, 군중(대구 사람)
- ② 언 제: 1930년대
- ③ 어디서: 대구 무태, 팔달교, 칠성시장, 서문시장, 대신동, 계산성당

<소개>는 금달래 이야기의 등장인물과 환경, 특히 시간과 장소를 구체화한 것으로 서사의 배경에 해당한다. ①의 금달래와 관련해서는 많은 정보가 소개된다. 먼저 금달래의 출생과 관련해서 많은 추측이 제시된다. 통일된 화자의 의견은 양반집의 딸이라는 점이다. 한편 어떤 집안의 딸이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화자는 많지는 않지만 화자에 따라서는 인천이씨 문중, 박씨 문중 등과 같이 밝히기도 한다. 금달래의 친정이 어디냐에 대해서도 대체로 일치한다. 대구 무태가 금달래의 출생지로 언급된다. 다만 칠곡 구암동으로 보는 화자도 있다. 금달래의 성장 과정에 대한 설명은 화자에 따라 실로 다양하다. 가장 많이 제시되는 내용이 시집과 친정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났다는 내용이다. 시집으로부터 쫓겨난 이유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거나 남편과의 갈등 혹은 오해로 설명 된다. 한편 금달래의 행실이 부정하여 쫓겨났다고 하는 내용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금달래가 화자로부터 동정적인 공감을 얻지만 후자의 경우는 부정적인 논평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금달래는 무엇보다 뿌리 뽑힌 걸인이다. 그녀를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달래는 미친 여인이기도 하다. 금달래가 미친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통된 내용으로 소개된다. 금달래가 시집을 간 다음, 시집 내의 갈등으로 쫓겨나고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자 걸인으로 행색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 금달래는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고 그 후 건강한 아이를 낳는다. 하지만 금달래는 의지할 곳 없는 처지로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고 한 아이를 길러낼 형편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아이를 갑자기 잃게 되고 아기를 잃은 것에 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줄을 놓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늘 금달래가 실성한 상태는 아니었고 가끔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돌아오고는 했다고 한다. 금달래가 정상적일 때는 대단히 사려 깊고 친절하였다고 한다.

외모와 관련하여 금달래는 무엇보다 예쁜 얼굴을 가진 여인으로 소개된다.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키 또한 늘씬하게 컸다고 한다. 형상을 보면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늘 치마를 입고 다녔다고 한다. 또한 늘 작은 보파리를 가슴에 안고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그것이 유명한 이유는 금달래가 보물처럼 안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작은 보파리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금달래가 안고 다닌 보자기를 두고 ‘그 안에 독립군 군자금에 들었을 것이다’, ‘금달래가 남몰래 훔친 장물이 들었을 것이다’, ‘귀한 불상이 들었기 때문에 소중히 모시는 것이다’, ‘아마 죽은 아기의 밀납 모형을 넣고 다니는 것일 것이다’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¹⁰⁾ 이러한 호기심 유발이 금달래 이야기를 회자하게

10) 금달래가 보파리를 안고 다녔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추측을 했다는 사실은 제보자 신태수(남, 55)로부터 조사된 내용이다.

한 이유 중의 하나로 꼽기도 한다.

<소개>에서 군중은 하나의 정적인 배경으로 제시된다. 그래서 군중을 인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없지는 않다. 그렇기는 하지만 금달래 이야기에서 군중은 필수 요소이다. 군중이 있음으로 금달래의 행위가 사건이 된다. 화자가 군중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금달래가 있는 곳에는 그 배경으로 군중이 있다는 것이 암시된다. ‘금달래는 남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나쁜 행동을 하고 다녔다’에서 많이 모인 남자들이 군중이 된다. ‘금달래는 서문시장 한 복판에서 뜨개질을 했다.’, ‘금달래는 대구역에서 볼 수 있었다.’ ‘금달래는 달성공원 앞에 있었다.’, ‘금달래는 역전에서 교통순경이 서는 자리에서 옷을 다 벗고 나체로 다녔다.’ 등의 표현은 이야기 속에 늘 군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금달래가 존재한 시기에 대해서는 화자들이 혼동에 혼동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화자는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라 하고, 어떤 화자는 6.25전쟁 전이라 하고, 어떤 화자는 1960년대라 한다. 특히 얼마 전 모 텔레비전 프로에서 금달래를 소개하면서 1950년대의 일이라 소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1950년대로 이해한다. 그러나 금달래 이야기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녀가 활동한 시기는 1930년대가 대체로 맞다. 권영호는 ‘금달래라는 여인이 등장한 시기가 1930년대이니 그녀를 목격한 경험담이 형성된 시기도 비슷한 때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1930년대를 제외한 시간적 배경은 화자들의 혼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¹¹⁾ 그렇기는 하지만 금달래

11) 이러한 혼동이 초래된 데는 화자의 기억 상 착각도 이유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대구의 금달래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금달래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이후 국가는 수용소를 통해 정신이상자를 보호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정신이상자들이 지역을 근거지로 삶을 살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가 보니 이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대구의 금달래와 혼동하였을 수도 있다.

가 1930년대에 출현하여 해방 이후까지 대구에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1930년대에서 50년대 초반까지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금달래가 활동한 공간에 대한 소개는 대체로 명확하고 현재 대구의 지명과 일치한다. 금달래가 움직인 동선은 낮과 밤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밤에는 무태나 노변동 다리 밑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낮에는 주로 대신동 서문시장과 인근의 대구역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화자에 따라서는 금달래가 움직인 동선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 아침에는 무태에서 금달래가 나무꾼들의 수레를 타고 칠성시장으로 나왔다가 서문시장으로 진출했다고 한다. 혹은 노변동 다리 밑에서 출발하여 달서천을 따라 올라와 달성공원과 서문시장, 혹은 계산성당 인근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금달래가 시간을 보낸 특히 낮 동안 시간을 보낸 공간은 그 당시 대구의 시장 경제나 대중교통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던 가장 변화한 곳이다.

III. 분류: 그때 무엇이 발생했나?

- ① 절인으로서 행동을 한다.
- ② 실성한 여인으로서 행동을 한다.

이야기의 내에서 균형을 깨는 혹은 화자나 군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분류>는 금달래의 두 종류의 행동이다. 먼저 ①의 절인으로서 보인 금달래의 행동이 화자의 주된 관심 대상이다. ‘금달래는 동네 밥을 얻어먹으러 다녔다’, ‘금달래는 동네에서 도둑질도 하였다’, ‘금달래는 상거러지 행색으로 구걸을 다녔다’, ‘금달래는 제 때에 먹고 정상적으로 입지 못하는 생활을 했다’, ‘금달래는 헌옷입고 달성공원을 돌아다녔다’, ‘금달래는 각설이패와 같이 옷을 그렇게 해 입었다’, ‘금달래는 길거리 아무 데서나 잠을 잤다’, ‘금달래는 음식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구걸을 하지는 않았다’ 등으로 이

야기 된다. 권영호의 채록 자료에 따르면 금달래가 ‘거지 대장 노릇을 했다’, ‘거지를 모아 잔치를 벌였다’, ‘의리가 강했다’, 심지어 ‘독립군 밀정노릇을 했다’ 등의 표현이 있어 금달래의 위상은 표면의 걸인을 훨씬 넘어서 비범한 인물에 이른다.

②의 미친 여인으로서 행동을 하는 금달래에 관한 경험은 화자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다. 그래서 양적으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화자에 따라 그 정도와 종류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야기에서 금달래는 다소 일관된 행동으로 묘사된다. 그것은 성적인 것과 관련된 행동이다. 금달래가 실성한 여인으로 많은 대중 혹은 청년들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다고 하거나,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성적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하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달래는 당시에 옷을 다 벗고 춤을 춘 것으로 유명하다. 차만 지나가면 발가벗고 앞을 가로막아서고 돈을 받으면 길을 비켜 주는 행동, 다른 남자가 가서 자자고 하면 곧잘 따라가는 행동, 머리를 산발한 채 옷을 다 벗고 동네를 뛰어다니는 행동, 사람이 지나가면 옷을 다 벗어버리는 행동 등 금달래는 군중들 앞에서 옷을 벗고 나서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옷을 벗는 실성한 행동보다 더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은 자기의 젖가슴과 성기 부분을 여러 물건들을 통해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에게 따라서는 상처를 입히는 행동이라 보기도 하고 다른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실성한 여인으로서 금달래는 성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도 한 것으로 이야기된다. ‘금달래는 청년들이 오면 함께 춤을 추면서 놀았다.’, ‘금달래는 유성기 소리를 따라 노래를 했다.’ ‘금달래는 예쁜 색시가 지나가면 똥을 가져다 바르는 심술궂은 행동을 했다.’, ‘금달래는 서문시장 1지구와 2지구 앞에서 맨날 다 찢어진 치마 입고 다리 다 내놓고 뜨개질을 했다.’, ‘금달래는 아이들만 보면 히히 웃었다.’, ‘금달래는 아가씨들이 예

뿐 양산을 들고 다니면 빼앗아서 다른 사람을 주었다.’ ‘금달래는 길거리에 드러눕고는 했다.’ ‘금달래는 색깔 있는 천을 좋아해서 색깔 있는 천으로 자신을 장식했다.’ 등등 실성한 여인으로서의 행동이 다양하게 이야기 된다.

IV. (외부적인) 평가

① 긍정적 평가

① 부정적 평가

<평가>는 이야기의 구술자가 청자에게 직접 말하는 형식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타난다. ①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화자는 금달래를 두고 불쌍하다고 하며 공감적 감정을 보인다. 반면 ②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화자는 ‘금달래는 행동을 좋게 하지 못했다는 평을 듣는다.’고 논평을 한다. 부정적인 평가에 반해 화자들은 금달래를 두고 ‘자기가 진정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이다.’, ‘금달래는 대구의 역사이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금달래에 대해 긍정적인 평을 내린다. 권영호의 연구에 따르면 화자의 논평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비율이 7:3이다. 연구자가 조사한 자료 32편 중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보면 어떠한 화자도 금달래에 대해 부정적인 논평을 내놓는 경우는 없었다. 말하자면 금달래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데는 금달래를 부정적으로 말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대체로 간접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자신의 논평을 가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간접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내리는 부정적 평가의 원인은 금달래의 출생과 실성하기까지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실성한 행동 그 자체만을 두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V. 결과나 해결: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 ① 금달래는 거두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쌍하게 죽었다.
- ② 금달래는 간첩이었다.
- ③ 독립군 밀정 노릇을 했다.

금달래 이야기의 <결과>는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의 성격이 금달래의 특별한 행동 곧 실성한 행동에 대한 보고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해결 과정과 그 결과가 뚜렷이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금달래는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 금달래의 비극적 행위가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고, 금달래가 그런 방랑과 미친 짓을 한 것의 해명으로 간첩 혹은 밀정이라는 추측성 내용을 덧붙인다. 이는 금달래가 단순히 미친 사람으로서 행동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로 결과 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미친 한 여인이 독립군 밀정으로 위상이 드러나는 것은 금달래에 대한 일종의 영웅화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신화에서 영웅의 발달은 첫째 장난꾸러기 트릭스터 단계로, 둘째 영웅적인 단계로, 셋째 오만하여 실패하는 영웅의 단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찰을 통하여 그리고 죽음으로 흔적을 남기는 위대한 영웅의 단계로 진행한다. 이러한 발달 단계로 보면 실성한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금달래 이야기는 트릭스터 단계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독립군 밀정으로 형상화된 이야기는 아마도 둘째 단계에서 보이는 영웅화의 단계로 보인다. 그런데 금달래는 대구에서 특별한 위상을 누리고 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지만 지난날 달구벌축제에서 금달래는 가장행렬의 일부를 차지하여 대구사람들로부터 역사의 한 인물로 기억되었다. 이는 영웅화의 단계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금달래

는 신격화 되어 마을을 수호하는 신으로 숭상된다는 제보자의 이야기도 있었다.¹²⁾ 이 제보자의 내용에 따르면 대구 금달래는 영웅의 발달에서 넷째 단계로 발달하여 영웅의 일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기도 한다.

Ⅶ. 종결: 그것으로 끝났다. 즉 나는 다 끝마쳤고,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 되돌아 와서 ‘그것을 연관 짓고 있다.’

<개요>가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듯이 <종결>은 이야기의 끝을 표시한다. 여기에 이르면 화자는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을 청중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가령 ‘지금까지 살았으면 백 살 될끼라’, ‘예예 지평생에 지평생에 기억이랍니다’ 등은 이야기가 종결되었음을 청자에게 알려주는 화자의 신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청중을 현재의 시간으로 관심을 돌려놓는다. 그리고 그 이후의 대화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대화임을 알리게 된다.

라보프의 자기서사 구조를 통해 금달래의 행위들과 그 행위들에 대한 화자의 논평들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논의의 결과 금달래의 행위와 논평이 ‘요약-소개-분규-(평가)-해결-종결’의 자기 서사 구조로 결속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금달래의 행위 구조가 논평 곧 평가와 분리 되지 않고 이것과 함께 결속 되어 행위의 구조에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것

12) 2005년에 권영호가 채록한 손종웅(남, 57)의 자료에 따르면 “시집이 구암동, 친정은 울암동이다. 명문가 출신으로 인텔리였다. 자식을 낳지 못해 쫓겨나 미쳤다. 베개를 안고 돌아다녔다. 남편이 재혼했으나 자식이 없었다. 남편이 나병으로 죽었다. 시집 때문 앞에서 죽었다. 공동묘지에 묻혔다. 양가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죽어 저승에서 아들 아홉을 낳았다. 마을을 수호하는 신이 되었다. 모시는 사당이 있다.”(권영호, 위의 논문, p.181.)

은 무엇보다 금달래 일화가 전형적인 자기서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금달래 일화가 금달래에 대한 단순한 경험(experience) 보고가 아닌 화자 자신의 삶(life)과 관련된 서사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IV. 화자의 이중자아(doubling)로서 금달래의 원형적 의미

‘자기-경험담’은 경험의 서사화를 통해 화자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자 하는 노력이 낳은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논평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것이든 타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든 이들 모두는 결국 화자 자신의 정체에 대한 논평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 경험담을 만드는 목적이 화자가 자신의 지배적인 삶(dominant life)을 만들어내어 자기 정체성의 일관성을 창조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경험담’에서 행위의 구조를 지배하는 인물이 화자가 아니고 금달래라면 이 경우 금달래는 화자의 또 다른 자아 곧, 이중자아(doubling)로 볼 수 있다.¹³⁾

이중자아(doubling)의 관점에서 보면 금달래에 대한 화자의 논평은 곧 화자 자신의 정체에 대한 논평이 된다. 화자가 금달래의 행위에 대해 논평한 것을 보면 긍정적인 것이 주를 이룬다. <요약-소개-문제-해결-종결>의 구조를 통해 만들어진 금달래의 행위에 대한 논평은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금달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 자료 수집 시점인 2011년을 기준으로 80대 전후를 보인다. 이들이 직접

13) 사이코드라마(psychodrama)에서 이중자아는 분신, 내적인 목소리, 또 하나의 자기, 마음의 쌍둥이 등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중자아는 주인공의 말과 행위의 이면, 내면의 느낌, 의식·무의식적으로 숨겨져 있는 대상의 진실을 드러내는 자이기도 하다.(최현진, 『사이코드라마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10) 본고에서 사용하는 이중자아의 개념 또한 사이코드라마의 개념을 따른다.

금달래를 보았을 때를 가정하면 아마 1930-50년이다. 제보자가 금달래를 직접 경험한 시기를 잠정적으로 추정하면 10대에서 20대이다. 부평초처럼 뿌리 뽑힌 한 여인이 실성한 채로 거리를 배회하고 성적으로 금기시 된 행동을 보일 때 평범한 대구의 10대에서 20대의 청춘남녀들은 이를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2장과 3장에서 살폈듯이 이들 평범했던 대구의 청춘남녀들이 금달래에 대한 경험을 경험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자기-경험담’의 서사 구조로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금달래는 실성한 여인에서 화자의 이중 자아(doubling)로 거듭나게 되었다.¹⁴⁾

사회·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요약-소개-문제-논평-해결-종결>의 자기 서사 구조로 수렴 된 금달래의 삶은 가족으로부터 뿌리 뽑힌 부랑자의 이미지를 반영한다. 역사상 부랑자는 항상적으로 존재했으며, 이들에 대한 구호는 온정주의적 사회관에 의해 지역차원에서 혹은 친족차원에서 행해졌다.¹⁵⁾ 그러나 이당시 부랑자들에 대해 어떠한 기관이나 제도도 보호자로서 책임지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금달래는 전근대로부터 뿌리 뽑힌 인간이면서 동시에 근대의 사회에도 정착하지 못한 인간이다. 화자의 논평 또한 금달래의 사회적 부랑자로서, 근대와 전근대의 경계인으로서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사회적 부랑자로서, 역사적 경계인으로서 화자의 처지를 금달래에게 투영했기 때문일 것이다.¹⁶⁾ 이러한 면에서 보면 금달래는 사회의 부랑자로서, 역

14) 여기서 ‘이중자아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경험담을 ‘자기-경험담’의 형식으로 담아냈기 때문에 ‘금달래가 곧 화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자기-경험담’의 형식적 의의를 나타낸 말이다.

15) 한귀영, 『부랑자의 탄생: 근대인과 그 타자성』,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 중원문화, 2010, pp.193-1199.

16) 권영호 교수도 이에 대해 “금달래 이야기가 전승력을 가질 수 있었던 데는 전승층이 금달래의 삶과 당시 식민지인의 삶을 동일시한 의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여 금달래

사의 경계인으로서 화자의 사회적·역사적 이중자아(doubling)라 볼 수 있다.

한편 원형(archetype)의 관점에서 보면 <요약-소개-문제-논평-해결-종결>의 자기 서사 구조로 수렴된 狂女인 금달래의 삶은 여신의 이미지와 연상된다. 특히 <소개>와 <분규>에서 금달래는 통제할 수 없는 광기를 통하여 파괴적인 형상을 연출한다. 그녀는 군중들 앞에서, 때로는 지나가는 차량 앞에서 스스럼없이 옷을 벗고 裸身으로 나선다. 때로 나신으로 군중들 앞에서 춤을 춘다. 심지어는 스스로 자신의 성기에 상처를 내기도 한다. 이외에도 금달래는 남의 집에 가서 옷을 훔치기도 하고 지나가는 잘 차려입은 선남자 선여인의 옷에 똥칠을 한다. 이 모든 것은 일상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금지된 것에 대한 위반이다. 이것은 창조와 파괴의 양면성을 지닌 그리스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신화에서 그녀는 대지모신격의 생산신적 직능을 맡고 있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광적으로 파괴하고 삼키고 새롭게 창조하는 파괴의 모습도 보인다.¹⁷⁾ 이러한 면에서 금달래는 원시적 여성성인 생산과 파괴의 여신적 이중성¹⁸⁾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狂女 금달래가 결인과 광인의 정체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이미지인 나체, 성기, 광인, 구결 등의 부정적 특징들을 강하게 보이기

이야기의 역사적·사회적 의미에 대해 본 연구와 같은 입장을 보인 바 있다.(권영호, 앞의 논문, p.174.)

17) 로버트 A. 존슨, 고혜경 옮김, 『신화로 읽는 여성성 SHE』, 동연, 2006.

18) 금달래가 보이는 직조와 파괴의 두 가지 성격은 마녀 키르케의 성격에서도 동일하게 확인 된다. 남성을 동물로 변하게 하는 대단한 미모를 지닌 마녀 키르케가 오디세우스를 만났을 때, 그 이전과는 달리 그를 그녀의 침실로 초대하여 사랑을 나누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키르케는 겉보기에는 치명적 마녀이지만 변환된 성격에서는 선한 여성성을 보인다.

도 하지만¹⁹⁾ 지혜와 창조를 의미하는 織造神格의 긍정적 이미지와도 보다 깊이 연상된다는 점이다.²⁰⁾ 직조신격과 관련한 금달래 이미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실로 천을 짜는 내용, 둘째는 천과 옷으로 몸을 치장하는 내용, 셋째는 역설적이게도 옷을 입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옷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표2는 연구자가 채록한 전체 32편의 자료 중 이 세 가지 유형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 된 내용이다. 총 24편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자료의 작품번호와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뜨개질·옷(천)과 관련된 자료들과 그 내용

작품번호	옷을 연상하게 하는 이야기 내용
1	치장이나 옷 걸치고 이런 거 안 했어.
3	어 차 가마 발가벗고 여 앞에 가로 섰는기라. 중략 땀길 때는 옷 입고 차갈 때는 벗어뿌리지.
5	교통하는 거 그 실제 그 위에 서가지고 그래 옷을 벗고 다녔는데.
6	도둑질도 하고 옷도 걸어놓으면 다 가가뿌고 와가가노 이카면.
8	정신이상자다. 정신이 이상해가 미쳐가 옷 다 벗고 막 금달래.
9	노랜티로 치마만 입고 그거 들추면서 자기 몸 자랑하는 거야.

19) 금달래는 원형적 여신들이라면 반드시 보이는 긍정적인 성격과 부정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 중에도 금달래는 광녀와 걸인의 이미지로 인하여 부정적인 성격이 표면상으로는 훨씬 강하게 인식된다. 그러나 원형적 여신은 이 두 가지 성격을 하나로 포용하는 위대한 어머니의 이미지로 변환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성격은 한 형상으로서 우보로스적 성격을 지니며 동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여성성의 특징을 드러낸다.(에리히 노이만, 박선화 역, 『위대한 어머니 여신』, 살림, 2009, pp.330-382.) 본고에서는 금달래의 두 가지 상반된 성격 중 선향 여성성, 혹은 긍정적인 성격에 중점을 두고 그 의미에 접근하고자 한다. 파괴의 여성성 혹은 부정적인 성격의 여성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향후 최종적으로는 금달래의 두 상반된 대극적 여성성을 포용하는 ‘우보로스 상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0) 이지영은 논문 “직물신의 전승에 관한 시론적 연구-옷·베짜기 신화소를 중심으로”를 통해(『구비문학연구』제14집, 2002, pp.281-318.) 우리 신화에 전승되는 직물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직물신격의 계통을 밝히는 등 한국 직물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성과를 보였다.

10	각설이페 땡크러 웃도 그레 해 다니고.
11	되게 웃도 이상하게 입고 그치 쉽게 말하면 바람재이 할마시지
12	이래 천같은 거, 붉은 천, 파란 천 이런 거~ 머리에 걸고 ~ 그기 금달래라. 정신 이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화려하게 보일라고 장식하는. 하나의 장식이지. 우리가 볼 때는 미쳤다 카지만 자기는 나름대로 내가 예쁘다. 내가 잘 났다. 요새 처자를 장식하듯이. 그레 마 온테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깐 사람들이 그 별명이 금달래 금달래 칸거지.
16	맨날 치마 다 찢진 거 입고 다리 다 내 나오는데 맨 날 뜨개질하는거라. 그 그 뜨개질 하는 거 있자나. 뭐 뜨개질 잘하데. 뭘 내의 뜨고 어디가나 뜨개질하고 (중략) 맨 날 뜨개질 한다. 1지구 앞에. 서문 시장 1지구 앞에.
17	치, 치, 치마만 걸치고 땡겼는데.
18	어, 벗고 다니고 웃도 없이 뭐 금달래라 쟤자나.
19	그 때 제가 다른 데서 듣기에는 별거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데요 (중략) 그 사람 특징은 호울딱 벗는기야. 사람머 잇끼나 말기나 막 벗어가즈고 어어 고.
20	빨가벗고 대신동 사거리에 빨가벗고 다니고 미친 여자가 하나 있어. 금달래 카는 여자가 하나 있어. 빨가벗고 웃에다 몸에다 아무 것도 안 입고 나체 바람으로 돌아다니고.
21	알아요. 옛날에 금달래가 서문시장 복판에 6.25 때 와가고 만날 뜨개질하고 땡겼다. 금달래 라고 있었다. (중략) 뭐 자꾸 짜더라카йка네. 그 사람이 거러진데 짜는 건 잘 짜드라카이. 참 잘 뜨드라카이.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22	헌 옷 입고 달성공원 돌아 땡기고.
23	그 뭐 빨개 벗고 뭐 그런, 그런 저 뭐라 그라노? 부끄러움 모르고.
24	집이 침산동에 있었는데 옷을 홀랑 벗고 (중략) 웃도 홀랑 벗고.
26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어 거 뭐야 욕시 미친 사람이야.
27	그냥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인간이었지(중략) 빨가벗고 그레 뭐 땡졌다.
29	옷 벗고 땡기면서 막 돌아 땡기고 옷을 홀렁 벗고 돌아 땡기고.
30	웃도 벗고 싶으면 벗어 뿌고 뭐 땡.
31	웃도 홀랑 벗어 뿌고 다니고.
33	여서 빨가 벗고 여잔데 빨가 벗고 쫓아 땡기고

금달래가 뜨개질을 하는 내용은 2편(자료16번, 21번)으로 금달래의 직조 성격적 성격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왜냐하면 금달래가 뜨개질을 하듯이 실로 천을 짠다는 것은 원형적으로 보면 직조의 여신이 올울이 실을 뽑는 지혜로 무엇인가를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이 실로 천을 짜는 행위 속에는 지혜의 여신성이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형성은 고대의 동서양 신화 중 직조하는 여신에서 자주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여신 아테나와 그녀의 경쟁자인 인간 아라크네에서 보인다. 특히 아테나는 대표적인 직조의 신이자 지혜의 여신이다. 견우직녀설화에서 베를 짜는 仙女인 직녀와 일본의 제복전에서 베짜기를 하는 여신 아마테라스 등에서도 실로 천을 짜는 생산신이자 울음이 실을 짓는 지혜의 여신을 만날 수 있다. 이처럼 뜨개질을 하는 금달래의 모습에서는 천을 짜는 창조와 한올한올 실을 짓는 지혜의 원형적 여성성이 발견된다.

금달래가 화려한 천과 옷으로 몸을 치장하거나 각설이패처럼 분홍 색동 한복을 입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료는 7편(자료6번, 9번, 10번, 11번, 12번, 17번, 22번)으로 이 또한 금달래에 대해 직조신격적 성격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자료12에서는 금달래가 붉은 천, 파란 천 등을 머리에 걸고 몸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으로 이야기 된다. 옷과 천은 한올한올 직조를 통해 완성된 생산물이다. 옷과 관련한 직조의 여성 신격으로는 속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 명주 백통이 들지만 한 통이 모자라 속옷을 만들어주지 못했다고 하는 제주도 선문대할망, 베를 짜서 치마를 만드는데 큰 치마는 안 되고 몽당치마만 만들었다고 하는 지리산 할머니, 선녀에게 비단을 짜게 해서 붉은 빛으로 물들여 관복을 만들었다고 하는 성모, 비단을 짜는 노파의 수양딸이 되어 비단을 짜 문도령에게 보내는 자청비 등이 있다. 금달래가 특별하게 화려한 옷과 천을 좋아하는 모습에서 선문대할망과 지리산 할머니, 그리고 자청비와 같은 원형적 여성 신격의 이미지가 발견된다.

옷과 관련한 24편의 자료들 중 벗은 금달래의 이미지를 포함한 이야기는 15편(자료1번, 3번, 5번, 8번, 18번, 19번, 20번, 23번, 24번, 26번, 27번, 29번, 30번, 31번, 33번)이다. 또한 권영호 교수가 채록한 자료 20편에도 ‘옷을 벗은 금달래’에 관한 이야기가 15편이다. 권영호 교수가 채록한 자료

들에는 ‘사내들이 꼬이면 옷을 벗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옷을 벗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옷을 벗었다. 사내들이 꼬이면 옷을 벗었다.’ 등의 내용이 보인다. 이들 자료들에는 금달래가 ‘옷을 입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고 ‘입은 옷을 상황에 따라 벗었다.’는 내용도 있다. 엄격히 보면 옷을 벗은 것도 입은 옷을 벗었다는 내용에 포함되므로 이 또한 옷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 또한 금달래가 형형의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다는 이야기의 또 다른 변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또한 금달래의 원형적 여성성과 연상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²¹⁾

금달래의 창조와 지혜의 여성성은 <소개>에서 제시된 그녀가 살아간 이야기 속의 공간에서도 발견된다. 그녀가 주된 삶의 터전으로 삼은 몇몇 장소 중 특히 대구 서문시장의 공간 이미지가 중요하다. 대구 대신동에 자리한 서문시장은 전국 3대 시장이기도 했는데 금달래가 살던 때의 서문시장은 원래 ‘성황당뚝’이라고 불리던 늪지이기도 했다. 광복전후 서문시장은 전통적인 섬유도시인 대구 주변의 각종 직물공업을 배경으로 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포목 도매, 소매 시장으로 성장한다. 금달래가 영위한 삶의 공간이 성황당과 연상되고 또 서문시장의 포목 등과도 연상이 되는데 금달래가 살아간 이들 공간이 천을 직조하는 지혜의 여신이 거주하는 공간 이미지와 겹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금달래의 창조와 지혜의 여성성이 천을 직조하고 천을 중시하는 대구의 전통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먼저 경주시 선도산의 여산신인 선도산 성모는 하늘의 선녀에게 비단을 짜게 해서 관복을 만들어 남편에게

21) 금달래가 옷을 벗는 행위는 본고에서 시도한 원형적 층위에서의 해석 이외에도 다층적 해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그 중에도 금달래가 옷을 벗는 행위를 심리적·사회적·역사적 층위에서 해석하는 작업은 또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왜냐하면 옷을 벗는 행위는 여성의 저항과 거부의 상징과 깊이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었다고 한다. 신라왕 혁거세와 알영은 백성들에게 농사와 양잠을 장려해 농토를 알뜰하게 이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연오랑 세오녀>편에는 세오가 짠 명주 비단을 신라 왕실에 주자 신라의 해와 달에 빛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다. 또 신라 제3대 유리왕 9년의 기록을 보면, 부내의 여자들이 두 패로 갈라 길쌈을 짠 기록이 있다. 문익점의 처가가 경북 의성이고 이곳에서 목화를 처음으로 재배했다고 한다. 경북의 민요를 보면 아녀자들은 베를 놓고 베를 짜는 일이 원래 선녀가 하는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근대 이후 대구는 서문시장과 그 일대의 침산동과 비산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섬유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통시적으로 볼 때 이처럼 금달래에게서 확인된 창조와 지혜의 여성성은 선도산 성모, 알영, 세오녀, 육부의 여자, 문익점의 처가, 경북의 아녀자, 근대 이후 대구의 섬유 여공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공시적·통시적 자료를 검토해 볼 때, 그리고 금달래의 원형적 여성성을 살필 때, 화자들로 대표 되는 대구 사람들이 베를 짜고 실을 잣는 창조와 지혜의 여신적 원형성을 고대로부터 지속적으로 계승하여 왔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금달래의 행위가 화자의 기억에 남아 자기 서사 구조로 긍정적으로 수용된 것도 어찌 보면 대구 사람들의 의식에 베를 짜고 실을 잣는 창조와 지혜의 여신적 원형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라 할 수도 있다.²²⁾ 이러한 여신적 원형이 때로 명주 비단을 짜는 세오녀로, 베짜는 신라의 여인들로, 목화를 재배하는 문익점의 아내로, 근대 이후 대구의 섬유공장 여공들로 상징화되었듯이 금달래를 통해서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을

22) 물론 이와 같이 대구 사람의 정체와 연결하는 데는 보다 신중한 태도와 보다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해 대구 사람의 정체를 단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지 않다. 다만 대구의 정체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고 후속 논의를 자극하는 데는 일정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

근거로 할 때, 특히 <요약-소개-분규-(평가)-해결-종결>의 자기 서사구조 속 금달래를 통해서 볼 때, 대구 사람들은 창조와 지혜의 원형적 여성성을 어느 지역보다 역동적으로 그리고 좀 더 특별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계승하여 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²³⁾

V. 맺음말

금달래 일화는 일화로서 그 생명을 다하고, 세대간 구비전승을 위한 힘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금달래를 직접 경험하고 기억의 구조로 저장한 세대와 그 세대의 이야기를 들은 동일 세대들이 아니면 금달래 일화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 전에 금달래는 영화배우 금보라가 연기한 영화로 제작 되었고 일전에는 ‘서프라이즈’라는 TV 프로에서 금달래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매체의 영향으로 대구의 금달래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인물의 이야기이지만 세대간 전승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금달래 일화가 무엇보다 자기-서사의 형식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화의 허구화를 엄격히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기-서사는 기억된 사실로 이야기 내용을 한정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지 못한 화자에게 이 이야기 전승은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

자기-서사의 공식을 엄격히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금달래

23) 대구 사람의 특징에 관한 연구들로는 이균옥의 『대구지역 전설·민담을 통해 본 대구정신』(『대구의 정신을 찾기 위한 대구향토사 조사연구』, 대구광역시, 2004, p.416.)과 대구사회연구소의 『전환기, 대구·경북의 선택』(MBC대구문화방송·매일신문사, 1994, pp.437-465.)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일화는 몇 가지 문제적인 사실을 말해준다. 첫째 금달래 일화는 금달래라는 한 실성한 여인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자기-서사의 전형적인 구조로 이야기 된다는 점에서 화자의 ‘자기-경험담(personal narrative)’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화자의 ‘자기-경험담’ 구조 내로 수용된 금달래는 화자의 이중자아(doubling)로서 정체를 띠는 점이다. 사회적 불량자이자 역사적 경계자로서 금달래는 곧 화자의 이중자아이며, 파괴적 창조자이자 지혜로운 자로서 직조의 여신적인 금달래 또한 화자의 창조와 지혜의 이중자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달래와 같이 실성한 여인은 어느 지역에서나 있을 수 있고 있어왔다. 그러나 대구 사람들처럼 이 여인을 기억하고 자기 서사로 수용한 경우는 흔치 않다. 대구의 금달래 이야기가 문제적이 되는 것은 대구 사람들이 이들을 삶의 주요한 요소로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대구 사람들의 정체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원형적 관점에 서서 늘 화려한 한복을 입고, 가슴에는 늘 보자기를 안고, 제 정신이 들 때면 서문시장가에서 뜨개질을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금달래는 자신의 성적인 부분의 신체를 너무나 경시하거나 심지어 훼손하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처럼 직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무엇보다 소중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그녀가 창조와 지혜의 원형인 여성성의 상징이기 때문이라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하여 대구 사람들의 심층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창조와 지혜의 여성성’을 발견하였다.

대구의 금달래 이야기는 당대를 살아간 화자의 이중자아(doubling)이다. 그러면서 금달래는 대구 사람들의 특별한 내면을 말해주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금달래와 같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기행을 보이는 실성한 여성을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에서 어

찌 보면 끊임없이 금달래를 만날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대구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와 지혜의 여성성인 금달래를 자신의 내면에 불러내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적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하겠다. 대구 사람은 따라서 내면에 창조와 지혜의 금달래를 적극적으로 불러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권영호, 『금달래 이야기의 전승 양상과 그 의미』, 『어문론총』 제42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p.156.
- 대구사회연구소, 『전환기, 대구·경북의 선택』, MBC대구문화방송·매일신문사, 1994, pp.437-465.
- 이강옥, 『일화의 설정과 그 정의 및 역사』, 『야담문학의 현단계1』, 보고서, 2001, p.96.
- 이균옥, 『대구지역 전설·민담을 통해 본 대구정신』, 『대구의 정신을 찾기 위한 대구향토사 조사연구』, 대구광역시, 2004, p.416.
- 이지영, 『직물신의 전승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옷·베짜기 신화소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4집, 2002, pp.281-318.
- 최현진, 『사이코드라마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10, pp.1-704.
- 한귀영, 『부랑자의 탄생: 근대인과 그 타자성』,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 중원문화, 2010, pp.193-199.
- 에리히 노이만, 박선화 역, 『위대한 어머니 여신』, 살림, 2009, pp.1-611.
- 존슨, 로버트 A., 고혜경 옮김, 『신화로 읽는 여성성 SHE』, 동연, 2006, pp.1-143.
- 툴란, 마이클 J., 김병옥·오연희 역, 『서사론-비평언어학적 서설-』, 한국문화도서관, 2008.

Abstract

The Structure of Personal-Narrative and the Consciousness of Transmitters in the Anecdote of *Geumdallae* in *Daegu*

Kim, Ki-Ho

The anecdote of *Geumdallae* is a story about a mentally-ill woman. Women who have mental disorders like *Geumdallae* can be and have commonly been found in any region in Korea. However, it is not common that a local society remembers such woman and receives as their own self-narratives as the people of *Daegu* have done. The story of *Geumdallae* in *Daegu* matters because *Daegu* people have regarded it as an important aspect of their own lives and talked about it so far.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y they remember and talk about the experiences concerned with *Geumdallae* is related to their own identities. To find the answers to the ques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Geumdallae* always wore a colorful *Hanbok*, Korean traditional dress, and was holding a pack wrapped in a cloth in her arms. When she recovered her senses from time to time, she knitted something at *Seomun Market*.’ *Geumdallae* undervalued and sometimes even damaged the sexual parts of her body. On the other hand, she took more special care of her knitting and clothes than any other things. Such behaviors are interpreted as that she is related the femininity, the archetype of creation and wisdom. Also it is found that *Geumdallae*’s femininity is associated to *Seonyeo* who weaved silk fabric in an ancient legend and the weaving women of the *Silla Dynasty*. From these analytical findings, it is concluded that ‘the femininity of creation and wisdom’, a symbolic meaning of weaving, exists in deep consciousness of *Daegu* people. Also, it is found that they had the will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under Japanese rule through the archetype of creation and wisdom. Today we cannot meet a mentally-ill woman who strides down the street doing insane behaviors like *Geumdallae* did. However, the people of *Daegu* can meet

Geumdallae, a goddess of creation and wisdom, in their respective inner side. As the ancient *Seonyeo* and the weaving women of *Shilla* gave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day through the femininity of creation and wisdom, another *Geumdallae* may come to visit us to solve the problems of *Daegu*.

Key Word : Geumdallae, anecdote, personal narrative, femininity, wisdom archetype, creation archetype, Daegu Identity.

김기호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53-810-2126 / 010-3802-9235

전자우편 : bluemn664@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5년 3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0일 게재 확정됨.
--

